



KBO 안갯속 순위 싸움... 10월까지 계속 된다

1위 SSG-2위 LG 3.5경기차... 25일 마지막 맞대결 관심

7연패 중인 5위 KIA와 NC 1.5경기차... 3차례 맞대결 남아

팀당 10~18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KBO리그가 후반기 치열한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다. 1, 2위팀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5위 싸움도 혼전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SSG 랜더스는 지난 19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쏠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홈경기에서 9회말 오재곤의 끝내기 솔로 홈런에 힘입어 14-13으로 진담승을 거뒀다. 시즌 82승 4무 54패를 기록한 SSG는 2위 LG 트윈스(77승 2무 47패)와의 승차를 3.5경기로 벌렸다.

SSG는 개막 10연승을 달리면서 선두 체제를 구축했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1위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SSG의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최강 전력을 자랑했던 SSG는 9월 들어 6승 1무 8패로 난조를 보였다. SSG의 8월 승률(13승 9패) 역시 LG(14승 6패)에 비해 떨어졌다. 반면, LG는 안정된 마운드를 앞세워 승차를 좁히고 있다. 9월 들어 8승 1무 5패의 성적을 올리는 등 뒷심을 발휘해 1위 탈환을 노리고 있다.

SSG는 올해 13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LG는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18경기를 남겨두고 있어서 반전을 도모할 기회가 많다.

특히, 25일 인천서 열리는 SSG와 LG의 마지막 맞대결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위 싸움은 더욱 치열하다.

순습게 포스트시즌 티켓을 획득할 것으로 보였던 KIA 타이거즈가 최근 7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9월 들어 5승 11패로 최악의 부진을 겪으면서 흔들리고 있다.

KIA는 최근 마운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타선에서는 나성범, 소크라테스 브리토, 류지혁 등이 분전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타자들의 부진하고 응집력이 부족하다.

9월 들어 10승 6패의 좋은 성적을 올린 NC는 시즌 58승 3무 66패를 기록해 5위 KIA를 1.5경기 차로 추격했다.

최근 양의지, 박건우, 오영수가 맹타를 휘두르며 NC 타선을 이끌고 있으며, 노진혁은 9월에만 6개의 홈런을 쏘아올렸다.

NC 선발 구장모와 맷 더모디는 9월에만 4승을 합쳐하며 포스트시즌을 노리고 있다.

NC는 아직 KIA와 3차례 맞대결을 남겨두고 있어서, 경기 결과에 따라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KIA에 3.5경기 차로 뒤진 7위 삼성 라이온즈(58승 2무 70패),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8위 롯데 자이언츠(58승 4무 71패)도 '가을야구'의 희망은 남아있다.

삼성은 9월 들어 10승 5패의 성적을 올려 5위 탈환을 바라보고 있다. 강한울은 9월 들어 고타율(0.432)을 기록중이며, 호세 피렐라, 구자욱, 강민호, 오재일 등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삼성 백정현은 8월까지 12연패 기록했지만, 9월 들어 3경기에서 모두 승리투수가 되면서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3위 키움 히어로즈(75승 2무 57패)와 4위 KT 위즈(71승 2무 57패)는 2경기 차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서, 시즌 막판 3위 경쟁이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키움과 KT 모두 안정감 있는 투수진을 앞세워 승리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타선의 침묵으로 고전하고 있다.

뉴스

김민규, KPGA 최고 영예 '제네시스 대상' 정조준

포인트 1위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주춤

KPGA 코리아투어가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제네시스 포인트 1위를 향한 선수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에게는 1억원의 보너스 상금과 제네시스 차량, 투어 시드 5년이 주어진다.

또한 PGA투어와 DP월드투어 공동 주관의 '제네시스 스키티시 오픈' 출전권도 부여한다. 국내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더 큰 무대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1년 제네시스 대상을 수상한 김주형(20)은 제네시스 포인트 1위 자격으로 지난 7월 제네시스 스키티시 오픈에 참가해 3위에 올랐다. 이후 좋은 흐름을 탄 김주형은 원탑 챔피언십에서 한국인 최연소로 PGA 투어 우승을 이뤘다.

올 시즌 제네시스 포인트 경쟁을 되돌아보면 개막전 제17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부터 18일 종료된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까지 16개 대회서 제네시스 포인트 1위 선수는 총 4차례 바뀌었다.

박상현(39)이 코리아투어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우승하며 제네시스 포인트 1위로 올라섰다. 박상현은 4번째 대회인 데산트코리아 명성웨이 매치플레이까지 제네시스 포인트 선두 자리를 지켰다.

이후 박은신(32)이 KB금융 리브챔피언십 종료 후 제네시스 포인트 1위에 올랐다.

김비오(32)가 바로 다음 대회인 SK텔레콤 오픈서 우승하며 제네시스 포인트 1위를 꿰찼다. 김비오는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까지 3개 대회서 제네시스 포인트 1위를 질주했다.

그 뒤부터 김민규(21)의 '독주'가 시작됐다. 김민규는 한국오픈에서 첫 승을 달성하며 제네시스 포인트 1위로 뛰어올랐다. 이후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까지 8개 대회가 펼쳐지는 동안 제네시스 포인트 1위를 지켜냈다.

김민규는 이번 시즌 11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1회 포함 톱10에 6회나 진입했다. 톱10 피니시 부문 공동 1위다.

김민규는 지난달 17일 아시아투어 인터내셔널 시리즈 코리아 개막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후 대회에 불참하며 치료와 회복에 몰두해 대상을 노리고 있다.



제4회 화순군수배 축구대회 '성료'

9개 축구클럽 700여 명 참가...만연FC 우승

지난 18일 화순군체육회가 주최하고, 화순군축구협회가 주관한 제4회 화순군수배 축구대회가 9개 축구클럽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날 화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만연FC가 우승해 우승기를 차지했다.

2위는 지난해 우승팀인 춘양인도클럽, 공동 3위는 능주클럽과 화사랑FC가 각각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 클럽별로 준비한 입장식 퍼포먼스가 돋보였다. 입장상으로 1위에 능주클럽, 2위 화사랑FC, 3위 웨비리클럽, 4위에 만연FC가 선정됐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코로나19로 체육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지만, 오늘은 어느 때보다 화순공설운동장에 활기가 가득 차 있다"며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축구장 조성 등 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새 유니폼 입은 황희찬 "도깨비·호랑이의 힘을 감춥처럼"

카타르WC 대표팀 유니폼 공개
도깨비·호랑이·태극·한류 담아
대한민국의 저력·에너지 표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 중인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희찬(울버햄튼)이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입을 새 유니폼에 대해 모티브가 된 도깨비와 호랑이의 힘을 언급하며 "감춥처럼 입고 나설 것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나이키는 19일 오전 강남구 청담동 Circle81에서 카타르월드컵에서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착용할 유니폼을 공개했다.

두려운 존재 없이 거침없이 맞서는 존재인 도깨비와 호랑이의 강인함을 표현하는데 신경 썼다.

올 유니폼은 도깨비에서 착안해 강렬한 붉은색이 바탕을 이루며 깔끔하고 통일된 느낌을 연출했다. 호랑이의 줄무늬를 형상화한 물결무늬 패턴을 어깨 부분에 더했다. 태극 전사들의 용맹스러운 힘과 기개를 담아냈다.

하늘, 땅, 사람의 조화를 상징하는 한국 전통 문양 삼태극을 재해석한 원정 유니폼은 검정색 배경에 미니멀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자부심을 표현했다.

유니폼 전면에 파랑, 빨강, 노랑 색상으로 프린트 패턴을 넣었는데 이는 세계로 퍼지고



있는 한류를 의미한다.

새 유니폼 모델로 나선 황희찬은 "멋진 행사에, 멋진 유니폼과 함께 해서 기쁘다. 좋은 기운을 얻어서 국민들과 대표팀에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깨비와 호랑이를 생각하면 어떤 상대도 두려움 없이 맞서는 게 느껴진다. 그 힘을 감춥처럼 입고 나설 수 있어서 자랑스러운 순간이 될 것 같다"며 "9월 2연전에서



재미있으면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승리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표팀 소집을 앞두고 참석해 자리를 빛낸 파울루 벤투 감독은 "올과 원정 유니폼 모두 예쁘다. 팀에 좋은 에너지를 줄 것 같다"며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 유니폼과 행운이 함께 했으면 한다"고 했다.

영리해진 이강인... 벤투호서 달라진 모습 보여줄까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마요르카)이 소속팀에서 한층 노련

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국가대표팀 합류 후 활약에 기대감을 품게 하고 있다.

이강인은 지난 17일 알메리야와의 2022-2023시즌 프리메라리가 6라운드 홈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1-0 승리를 도왔다.

이강인은 골이나 도움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한층 노련해진 모습을 보였다.

1-0으로 앞선 후반 45분, 이강인은 상대 진영 왼쪽에서 드리블 돌파를 하다 공을 밟고 넘어져 공을 뺏겼다. 그러자 이강인은 바로 일어나 공을 뺏은 상대를 끌개치기 뒤따라갔고 동료

들과 함께 역습을 저지했다.

이강인은 후반 추가 시간 3분 역습 상황에서 코너 플래크 쪽으로 천천히 드리블을 하며 시간을 끌었다. 초조해진 알메리야 미드필더 아르나우 푸이그말은 이강인을 2차례나 밀쳐 경고를 받았다. 이강인은 쓰러진 상황에서 공을 그라운드 밖으로 밀었다. 이 행동의 결과로 이강인 역시 엘로카드를 받았지만 시간을 다소 더 지연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플레이들은 직전 경기인 레알 마드리드전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이강인은 지난 11일 레알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 당시 1-0으로 앞서던 전반 추가 시간 2분 다소 무리한 크로스를 올렸고 공은 쿠르투

아 골키퍼 품에 안겼다.

이는 레알의 역습으로 이어졌다. 쿠르투아는 미드필더 세바야스에게 공을 건넸고 세바야스는 발베르데에게 패스했다. 발베르데는 자기 진영에서 마요르카 진영까지 드리블 돌파한 뒤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환상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다. 이 과정에서 이강인은 발베르데를 뒤쫓기는 했지만 따라잡지는 못했다.

당시 장면을 놓고 이강인이 전반 추가 시간이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그랬던 이강인이 대표팀 소집을 앞둔 마지막 소속팀 경기인 알메리야전에서는 달라진 면모를 보여준 셈이다.

뉴스